



[산업]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파트2 비스포크 플립 기대감 06



Economy

코스피	↑	2944.41 (+28.03)	코스닥	↑	953.47 (+13.32)
금리 (미국 3년)	↑	1.824 (+0.009)	환율 (원/달러)	↓	1193.80 (-5.00) (13일)

항공·해운 고정비에 ‘울상’... 조선·정유 발주기대 ‘활짝’

‘유가 80달러’ 산업계 명암

기름연료 사용 석화·항공·해운 고정비 부담·환율상승 등 악재

조선, 잇단 해양설비 공사 혼풍 정유, 정제마진 상승에 실적 기대

국제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석유는 물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내 산업계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회비가 잇달리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등이 예상되면서 조선, 정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는 석유화학·항공·해운업계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조선 업계 기대감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배럴당 8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 상승은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오펙플러스)가

추가 증산 없이 현재 증산 계획을 유지키로 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업계와 정유업계는 계속된 저유가 기조를 유지하던 지난해보다 실적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발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 (마이너스) 38달러까지 추락했던 유가가 상승기조를 이어가며 지난 7월 80달러대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영향은 조선업계로 이어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8월 6600억원 규모의 미국 해양설비 수주 소식을 전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Floating Production System)는 길이 91m,

폭 91m, 높이 90m 규모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와 400만 입방미터(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1월 5000억원 규모 미안마 가스전 플랫폼 수주에 이어 5월 8500억원 규모의 브라질 FPSO까지, 올해만 3건의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정유업계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며 재고평가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원유 수입 프리미엄(OSP)이 낮아져 정제마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 가격이 함께 높아져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화장품 시장도 양극화 심화 비싸거나 싸거나 가격전략 승부수

화장품 업계가 초고가 전략으로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로드샵을 통한 할인 행사 등을 펼치는 등 화장품 시장에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급 이미지를 입은 브랜드의 화장품들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자사의 럭셔리 브랜드 후의 고가 라인인 ‘환유’에서 밸런서, 로션 제품 등 구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후 외에도 슝, 오후 등 럭셔리 화장품 중심의 차별화한 전략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설화수의 ‘자음생’, ‘진설’ 등 고가 라인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고급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의 매출이 올해 대비 2022년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LG생건,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 강화 아모레 ‘설화수’ 내세워 매출 증가 전망

토니모리 20%, 에뛰드 30% 할인 등 로드샵은 불경기로 이벤트 판매 총력

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생 브랜드에 해당하는 한섬의 ‘오에라’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법인 한섬상해에서 물량을 풀 예정이다.

반면, 로드샵에 유통되는 화장품 브랜드들은 10월을 맞아 할인 행사 및 이벤트 판매를 총력으로 펼치고 있다.

토니모리는 9월 세일에 이어 지난 10월까지 제품들을 20% 할인 판매했으며, 에뛰드는 가을 새도 팔레트와 싱글 아이 새도, 블러셔를 선보이며 새도 팔레트는 1개 구매 시 20%, 2개 구매 시 30% 등 큰 할인을 적용했다.

이 같은 가격적인 할인율에는 로드샵 매장이 폐점하는 등 저가 브랜드들의 불경기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에뛰드는 2019년 321개에서 지난해 239개로, 토니모리는 291개에서 223개로, 미샤는 270개에서 214개로 등으로 매장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로드샵의 가격 경쟁력이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을 더 주고 럭셔리 제품을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서울 아파트값 4년 동안 두 배 올라

이번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오른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 46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2배 상승한 것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1641만원에서 지난달 2477만원으로 올라 5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 (62.1%) ▲강남구 (59.9%) ▲서초구 (59.2%) ▲송파구 (57.0%) ▲성북구 (53.6%)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뉴스시스

GM 리콜 합의금 논란... LG “충당금 설정 기준 차이”

GM, LG 분담 비율 95%로 몰아 LG “리콜규모 서로 다르게 추산”

미국 GM이 전기차 리콜과 관련한 비용을 LG전자·에너지솔루션과 다르게 발표해 논란이다. 최종 리콜 규모를 서로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추가 분담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12일(현지시간) 쉐보레 볼트 EV와 EUV 리콜 비용을 20억달러(한화 약 2조 3000억원)라고 밝히며, LG가 이 중

19억달러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M 실판 아민 부사장은 “엔지니어링팀과 제조팀이 새로운 배터리 모듈 생산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이번 달 고객 차량 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GM이 밝힌 분담금은 당초 LG측이 밝혔던 1조4000억원을 훨씬 넘어선 금액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이같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다.

분담 비중도 LG측에 95%를 몰아 주며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양

측은 최근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드물게 분리막 밀림과 음극탭 단선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LG는 리콜 규모를 서로 다르게 추산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M이 구형과 신형 모든 제품을 전수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충당금을 설정했다며, 각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탓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LG측이 추산한 리콜 비용은 구형을 전수 교체하고 신형을 선별교체하는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LG측에서는 충당금이 추가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형 배터리까지 전수 교체할 필요는 없기 때문.

다만 일각에서는 리콜 주체인 GM이 전체 비용을 20억달러 수준으로 발표한 만큼, LG 충당금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올 초 현대차 코나 EV 리콜과 관련해 70%를 분담했던 만큼, 이번 분담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신에서는 ‘GM의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당무위 “무효표 처리 문제없다” 결론내 /사진 뉴스시스

▲ 민주당, 대장동 대응 TF 설치... 당 차원 수비

▲ 국힘, 경기도청·성남시청 항의방문... 대장동 자료제출 촉구

▲ 신영수 전 의원, 이재명 고소... “LH 압력 주장은 허위”



▲ 유승민, “난임치료 국가전액지원해 출산권리 보장” /사진 뉴스시스

▲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중”